

# 여자월드컵 내일 콜롬비아전 ... 거친 몸싸움 이겨내야

11시 H조 호주 시드니서 1차전 벨 감독 "후반에 승부하겠다"



콜린 벨 감독이 이끄는 여자 축구대표팀의 2023 국제축구연맹(FIFA) 호주-뉴질랜드 월드컵 첫 번째 경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대표팀은 한국시간으로 25일 오전 11시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시드니 풋볼 스타디움에서 월드컵 조별리그 H조 콜롬비아와 1차전을 펼친다.

벨호에는 콜롬비아전 승리가 이번 월드컵을 풀어나가는 '열쇠'다. 선수들은 '8강 진출'을 외치지만 벨호의 1차 목표는 2015 캐나다 대회 이후 8년 만의 16강행이다.

FIFA 랭킹 2위의 강호 독일과 한 조에 묶인 터라 첫 경기에서 승점 3을 챙겨야만 유리한 위치를 점한 채 남은 경기에 임할 수 있다.

독일에 이어 사실상 조 2위를 두고 경쟁하는 콜롬비아의 기세를 초장부터 꺾을 기회이기도 하다.

그런 만큼 벨 감독뿐 아니라 주장 김혜리(인천 현대제철), 에이스 지소연(수원FC 위민) 등 선수들은 공개석상에서 거듭 콜롬비아전에 전력을 쏟겠다고 강조해왔다.

벨호의 월드컵 출전 경기 상대도 '가상 콜롬비아' 역할을 기대하고 초창한 아이티였다.

지난 8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펼쳐진 아이티와 국내 평가전에서 대표팀은 2-1로 이겼는데, 빠르고 저돌적인 상대 측면 공격수들에게 수비진이 애를 먹었다.

아이티 공격수들은 틈만 나면 우리 수비진과 결합하며 적극적으로 돌파와 스피드전을 시도했다.

수비진 중 가장 발이 빠른 후효주(수원FC)도 상대 침투 패스가 뒷공간으로 빠져나가자, 순간적으로 가속하며 공을 쫓아 댄 몽테시리 네리리아(몽펠리에)를 전혀 따라잡지 못했다.

2005년생 '신성' 공격수 린다 카이세도(레알 마드리드)를 내세운 콜롬비아는 공격에 중점을 둔 경기 운영뿐 아니라 몸싸움 등이 거칠기로도 소문이 났다.



호주-뉴질랜드 여자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인 콜롬비아전을 이틀 앞둔 23일 오후(한국시간) 대표팀의 박은선(왼쪽부터), 장슬기, 문미라, 조소현, 손화연 등 선수들이 호주 시드니 외곽의 캠퍼타운 스포츠 스타디움에서 훈련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5일 아일랜드와 비공식 평가전이 경기 시작 20여분 만에 파행되면서 '악몽'을 언었다.

경기 후 아일랜드가 성명을 통해 "너무 격렬해서 경기를 끝내기로 했다"고 밝혔다기 때문이다.

'에이스'까지 격렬한 몸싸움을 마다하지 않는 콜롬비아에 맞서는 벨호의 전략은 윤곽이 뚜렷하다. 체력·몸싸움에서 기본적인 차이가 있는 만큼 '체

력'으로 만회하겠다는 것이다. 아이티전에서도 경기 초반 거친 압박에 기를 펴지 못하던 선수들은 후반이 넘어가자 오히려 상대를 압도했다.

상대 선수들이 전반만큼 주력, 활동량, 적극성을 유지하지 못한 반면 우리나라 선수들은 땀뻘 땀 흘림을 보이며 경기 끝날 때까지 스피드전을 시

도했다. 벨 감독이 주장한 '고강도 훈련'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본 셈인데, 반대로 말하면 양 팀 모두 체력 문제가 없는 초반의 거센 공세를 버텨야 하는 게 속제로 남았다.

지소연은 22일 호주 시드니 외곽의 캠퍼타운 스포츠 스타디움에서 팀 공식 훈련을 마치고 취재진에 "초반 20분이 가장 중요하다. 그때 흔들리는 모

습이 많았다"며 "기습에서 밀리지 않고 버티다가 차츰 상대 체력이 떨어지면 정교하게 공략해야 한다"고 짚었다.

콜롬비아의 FIFA 랭킹은 우리(17위)보다 낮은 25위지만, 여러모로 방심할 수 없다. 콜롬비아는 지난해 열린 코파 아메리카(남미축구선수권대회)에서 결승까지 올라왔다. /연합뉴스

## KIA 이의리의 '성장통'

공은 좋은데 결과는 안 좋아... "경험 쌓아 팬들의 자부심 되겠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KIA 팬들의 자부심이 되겠습니다."

KIA 타이거즈의 이의리에게는 '예측불허'의 전반기였다.

위력적인 공으로 강렬한 1회를 보내고도 갑작스러운 난조로 5회를 마무리하지 못한 경기가 있었고, 초반 위기를 넘고 선발 역할을 완수한 경기도 있었다.

스피드가 오르면서 150km를 웃도는 공을 쉽게 뿌리며 94개의 탈삼진을 뽑아냈지만 불행 역시 62개로 전체 1위다.

기록 많았던 경기들 그래서 이의리는 자신의 전반기에 '50점'을 썼다.

이의리는 "하고 싶은 야구를 하지 못했다. 심적으로 편하게 못한 부분, 해보고 싶었던 것을 못하게 어렵다"며 "그래도 건강하게 전반기를 보낸 부분에서 점수를 썼다"고 설명했다.

올 시즌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보면 '성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일단 구속이 눈에 띄게 늘었다.

이의리는 "뚝같이 던지는 것 같은데 작년하고 다르다. 구속 욕심을 내기 보다는 운동을 꾸준히 하다 보니 몸이 알아서 성장한 것 같다. 저절로 스피드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지난 시즌에 비해 변화구 제구도 좋아졌다. 이의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더 좋아졌지만 전체적인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의리는 "내 공 좋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안다. 변화구도 좋다. 다 좋아했는데 결과가 안 좋다. 올해 편하게 이길 수 있는 경기들이 많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며 "재작년에는 무난하게 풀어가다가 들쭉날쭉 했었다. 작년에는 좋은 경기, 안 좋은 경기가 명확하게 갈렸다. 하지만 올해는 모든 경기가 좋은데 경기 안에서 한 이닝, 한 이닝 위기가 있고 혼자 흔들리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다"고 언급했다.

매 경기 다른 모습이 아니라 매 이닝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이의리도 답을 찾는 게 더 힘들다.



이의리

이의리는 "잘 던진 날은 아예 잘 던지고 못 던진 날은 못 던졌다. 애버러지가 좋아졌다고 해야 되나. 순탄하게 가다가 한 이닝에 무너지는 경우가 되게 많았다. 그런데 매 경기 처음부터 끝까지 안 좋은 건 없었던 것 같다"며 "혼란이 오는 시기인 것 같다. 차라리 좋은 경기가 있으면 좋은 경기를 찾아보고 안 좋은 경기가 있으면 안 좋은 경기를 찾아보는데 그런 게 아니다"고 말했다.

또 "그냥 생각을 하지 않고 던져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보니까 후반 위기를 못 넘긴 것 같다. 좋을 때도 '아 언제 안 좋아지지?' 이런 게 생길 것 같다. 초반에는 불안한 마음으로 던진 적은 없는데 후반에는 스스로 불안해 한 것 같다"며 "전체적으로 안 좋은 경기가 있으면 안 좋은 것을 찾든지, 핑계를 대던지 할 건데 핑계 덜 게 없다. 내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언급했다. 기술적인 문제가 아닌 만큼 이의리는 차분하게 스스로 답을 구하고 있다. 코칭스태프도 성장통을 겪는 이의리가 최대한 편안하게 한 단계 올라 설 수 있도록 인내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이의리는 "위기라고 하기에 그렇고 혼자 만드는 상황이 많다. 위축되는 게 많았던 것 같은데 눈치 보지 않고 자신감을 찾아야 할 것 같다. 코치님들도 편하게 해주시려고 하고, 웃으면서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며 "가지고 있는 것은 많다. 가진 게 많아서 헤멜 수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왔다갔다 하는 게 심하다. 경험 많이 쌓고 팀에 민폐 끼치지 않고 도움이 되고 싶다. 팬들 스트레스 안 받게 하고 싶다. 조금만 참아주시면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후반기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두현석 골...광주FC, 한 달 만에 승리

1-0 수원FC 꺾고 5위 점프



두현석은 웃었고 이정호 감독은 울먹였다.

광주FC가 지난 22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수원FC와의 하나원큐 K리그1 2023 24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두현석의 결승골로 1-0 승리를 거뒀다.

최근 세 경기에서 연달아 무승부를 기록하는 등 승리에 목말랐던 광주는 6월 24일 전북현대전 2-0 승리 이후 한 달 만에 기다렸던 승리를 장식했다.

두현석이 전반 막판 원투골을 선보이면서 결승골 주인공이 됐고, 골키퍼 김경민은 눈부신 선방쇼를 펼치면서 승리를 지켰다.

광주가 경기 초반부터 수원FC를 거세게 몰아붙였다.

전반 5분 코너킥 상황에서 아사시가 오른쪽에서 올린 공을 뒤에서 달려온 엄지성이 헤더로 연결했지만 공이 높게 뒀다. 2분 뒤 엄지성이 이번에는 허슬과 공을 주고 받은 뒤 오른쪽 슈팅을 날렸지만 골대를 벗어났다.

전반 17분에는 수원FC의 역습이 전개됐다. 로페즈가 왼쪽에서 공을 몰고 올라간 뒤 오인표에게 패스를 했다. 이민기가 마지막 순간 공을 쳐내면서 수원FC의 흐름을 끊었다.

전반 22분 수원FC 김현의 터닝슈팅이 나왔지만 힘 없이 바운드 된 공이 골키퍼 김경민 앞으로 향했다. 3분 뒤에는 이승우의 오른쪽 슈팅이 나왔지만 김경민이 다시 공을 막아냈다.

26분 아사시가 오른쪽에서 길게 올린 공이 골대 앞에서 바운드 된 뒤 바깥으로 휘어나갔다. 아사시는 전반 38분에도 슈팅을 시도했지만 수비 맞고 공이 흘렀다.

39분 김경민의 슈퍼세이브가 나왔다.

로페즈의 강력한 슈팅이 광주 골대로 향했지만 김경민이 공을 푼에 안았다. 1분 뒤 전경환 끝에 신세계의 슈팅이 나왔지만 김경민이 재차 공을 막아냈다.

수원의 공세를 저지한 뒤 두현석이 분위기를 바꾸는 골을 만들었다.

아사시가 문전으로 띄운 공이 상대 머리 맞고 뒤

로 흘렀다. 페널티 아크에서 가슴으로 공을 떨군 두현석이 시원한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지난 6월 4일 포항스틸러스와의 홈경기에서 마수결이 골을 선보였던 풀백 두현석의 시즌 2호 골.

1-0로 앞선 후반 17분 두현석이 멀티골을 놓쳤다. 이희균이 오른쪽에서 내준 킥백을 두현석이 슈팅으로 연결했지만 수원FC의 골키퍼 박배중에게 막혔다.

후반 24분 프리킥 상황에서 수원FC 윤빛가람이 왼쪽에서 띄운 공이 광주 골대로 향했지만 김경민이 편창으로 위기를 넘겼다.

후반 36분 광주 이민기가 왼쪽으로 침투해 슈팅까지 날려보냈지만 공은 골키퍼 정명호로 향했다.

후반 막판 수원FC의 공격이 연달아 전개됐다. 후반 40분 바우테르손의 중거리 슈팅이 광주 골대로 향했지만 김경민이 다시 한번 좋은 수비를 선보이면서 실점을 막아냈다.

실점 위기를 넘긴 뒤 광주가 추가골 사냥에 나섰다. 교체 멤버로 들어갔던 이경희가 후반 43분 때 서운 슈팅을 날렸고, 공은 골키퍼 맞고 흘렀다. 이어 정호연도 슈팅을 시도했다. 정호연의 오른발을 떠난 공이 골대 왼쪽 구석으로 향했지만 문전에 있던 수원FC 신세계 어깨를 맞으면서 아쉽게 방향을 바꿨다.

5분의 추가 시간. 후반 막판 수원FC 김현의 슈팅이 김경민 앞으로 향하면서 광주가 한숨을 돌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개된 수원FC의 공세가 지지하면서 광주가 빛속 혈투의 승자가 됐다.

광주가 이날 승리로 4경기 연속 무패(1승 3무)를 기록하면서 5위로 올라섰다.

이정호 감독은 "선수들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고, 의미 있는 승리라고 생각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모든 걸 쏟아내는 모습이 자랑스럽고 대견하다"며 울먹인 뒤 "그라운드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면 울컥울컥 감동이 올라온다. 팬들이 많이 늘어나고있다. 비가와도 먼 길을 찾아온 팬들이 선수들에 큰 힘이 된다. 고맙고 감사하다"고 승리 소감을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